

망끝 선교

(저자:이영 /출판사:아침향기)

작성일: 2024년 1월 3일 / 작성자: 윤경순

1. 전체 요약

선교에 관심이 있는 지역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선교의 ABC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선교의 당위성), 선교의 참여 방법, 현대 선교의 동향, 선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선교사의 정착과 생활, 선교 사역 철학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현장 선교 경험, 선교 행정 경험, 선교학 공부를 통한 학문적 통찰 등에 기반하여 선교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2. 내게 인상적인 내용과 느낌

이 책을 통해 선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되어 뿌듯했다. 선교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을 저자의 현장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기술한 책이어서 한 권을 읽고도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었다. 두꺼운 책이지만 저자의 현장 경험이 많이 녹아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선교에 대해 잘못된 편견도 바로 잡을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다.

(1)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간접 선교, 직접 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간접 선교의 방법 중 선교를 위한 기도와 멤버케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 '기도는 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선교사역 자체'다. / 선교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상승시키는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어떤 선교사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도록 돕는 것은 선교사역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효과적이다.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에 참석하곤 하는데 기도가 곧 사역임을 인식하고 나의 기도로 선교지가 변한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다. / 직접 선교를 내게 적용해 보면 앞으로 비거주 선교사, 실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 지인 선교사님은 한국이 많이 변해서 오히려 선교지가 더 편하고 한국에 오면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다. 안식년에 오히려 거할 곳이 없고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선교사가 많다. 도울 부분을 도와야겠다.

(2)현대 선교 동향

-선교도 때를 알아야 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와 산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10년 전에는 어떠한 선교 전략이 있었으며, 10년 후에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기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선교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선교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평등한 동역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선교사가 스스로 변화되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 선교를 하러 가는 게 아닌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는 것이다.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닌 함께 살기 위해 가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 필요한 것은 영성이 있는 선교사다. 영성이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영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말씀에 순전히 사로잡히는 것이다. 전략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 내가 생각하는 선교의 방향이 제국주의적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보다는 나눠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이전에 나의 변화된 삶이 먼저 있어야 하고 함께 살면서 그 변화된 삶이 전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 주님과 깊은 교제의 개인영성이 필수 조건이다.

(3) 해외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소명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현재 하나님의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역교회에서 했던 것 이상 더 큰일을 선교지에서 할 수 없기에 철저하게 지역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 당신이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은사를 개발할 때 그 은사를 통해 사역을 잘 할 수 있다. 준비한 만큼 사역을 잘 할 수 있다. 달인이 돼라.

-선교지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선교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 학교 기독 동아리와 신우회, 교회 선교사 중보기도모임, 교회 중국어예배 참여 등에 충실하자! 기초 영어, 한국어 양성과정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자.

(4) 선교지 정착과 선교사의 생활

-저자는 신임 선교사에게 '선교사의 삶이 바로 선교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삶이 선교라는 말은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선교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복음과 말씀은 능력이 없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선교사는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들어할 때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이다.

-선교지에 처음 도착할 때부터 다른 선교사를 세워주는 것이 또 다른 사역이다.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유지한다. 아무 방해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은 평생 매주 금요일은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시간을 가졌다. 그의 선교 원동력은 매주 금요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데 있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의 고생, 사역의 결실을 교회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과 현실의 삶이 괴리가 심해 괴로움을 겪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되는 게 아닌 성화된 척 하기 때문이다. 삶이 따라주지 않고 말로만 경건한 삶을 사는 척 한다. 일상의 삶에서 경건의 모습과 타인을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

(5) 선교 사역 철학

-예수님의 사람 중심의 철학 : 눈에 보이는 사역에 초점 맞추지 않고 3년간 12명의 제자를 양육함, 12제자를 통해 세계선교의 역사가 시작됨.

-선교사 자신의 개발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타인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바로 서야 한다. 한 사람의 중요한 영역은 바로 선교사 자신이다. 선교사 자신이 중요한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선교사의 영향력은 선교사의 사역과 열심에 있기 보다는 선교사 자신의 성숙에 있다. 선교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선교이다. 선교지에서 참된 영향력은 삶의 성장에 달려 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어떤 사람이냐가 우선된다.

-선교지는 완전무장을 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선교사만 된다면, 선교지만 가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큰 착각이다.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는 사람을 피폐하게 하며 여유가 없으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곳이며 죽음을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곳이며 육신의 전쟁터이기도 하며 아픔과 상처

를 주는 곳이며 절제하기 어려운 곳이며 회복과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기에 선교지는 자기 절제, 좋은 인격, 기도와 말씀의 영성, 사역의 기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자질: 거룩한 삶, 선교는 선교사의 '거룩한 삶'이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의 목표다. 선교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의 결실은 그 거룩한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이다.

-선교사의 목표 중 가장 큰 것은 현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현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선교다. 선교사의 진정성은 많은 사역보다 현지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있다. 한 사람에게 대한 철학 가운데 한 사람의 현지인을 세우고 선교사 한 사람, 곧 자신을 세워나가는 선교사가 될 때 진정한 선교가 이뤄진다.